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MACRO INSIGHT / No.15

수출 1조 달러 · 반도체 집중 · 소비와 고용의 확산

수출 1조 달러 시대에도 코스피는 왜 급락하는가

한국 경제의 성장 불균형

반도체 수출 호황이 기업이익·고용·내수로 확산되는 조건

1조 달러
11월 19일 누계 수출 달성 [1]

74.5%
1~10월 수출 증가액 중 반도체 [2]

-5.21%
11월 20일 코스피 하루 등락 [9]

수출은 늘었다.
소득의 확산 속도와 시장의 기대는 달랐다.

총액의 기록을 넘어 성장의 구성·분배·지속성을 살펴본다.

분석 기준일 2026.11.22

TRADELENS.KR

시장·산업·거시경제의 구조와 경제적 효과 분석

01 / RESEARCH VIEW

수출과 주가는 서로 다른 시간을 반영한다

핵심 질문: 반도체 수출 호황은 어떤 조건에서 기업이익·고용·내수로 확산되는가?

TradeLens의 판단은 **수출 성장의 집중, 소득 파급의 시차, 미래 이익에 대한 시장 재평가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 기록은 실제 성과다. 다만 수출액이 늘어난 만큼 모든 기업의 이익과 가계의 소득이 즉시 증가하는 구조는 아니다.

확인된 관측	구조적 의미	판단의 경계
1~10월 수출 증가액의 74.46%가 반도체 [2]	성장의 무게가 특정 산업에 집중	비반도체 수출도 20.29% 증가
3분기 내수 성장기여 +0.9%p [4]	투자·정부지출을 통해 이미 파급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2%
11월 20일 코스피 -5.21% [9]	미래 이익·위험 평가가 빠르게 변화	수출 붕괴나 경기침체를 단독 입증하지 않음

불균형은 성장의 부재보다 확산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수출 호황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후 임금·성과급·배당·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소재지, 공급망의 국내 조달 비중, 고용 집약도, 지급 일정에 따라 수혜의 범위와 속도는 달라진다. 이러한 연결을 실제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총액 기록 다음의 과제다.

기본 전망과 반증 조건

기본 경로는 수출·투자 확대와 소비·고용의 불균등한 개선이다. 비반도체 기업의 이익, 민간소비와 민간 고용이 함께 좋아지면 확산에 대한 판단을 높일 수 있다. 반도체 가격·물량과 설비투자가 동시에 약해지면 수출 집중은 성장의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02 / MILESTONE & SCOPE

1조 달러는 무엇의 기록인가

확인된 사실 | 통관 기준 상품 수출·명목 달러 금액·2026년 연중 누계

관세청은 **11월 19일까지의 누계 수출을 1조 15억 달러**로 집계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9% 증가한 잠정치다. 제목의 1조 달러는 실제로 달성한 상품 수출 기록이며, 2026년 연간 최종 확정액은 아니다. [1]

지표	측정 대상	이 보고서의 해석
통관 수출액	수출신고가 수리된 상품의 명목 신고금액	상품·서비스 수출 합계 및 상품 수출입 무역총액과 구별
국내총생산·소득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와 실질 구매력	수출에 투입된 수입 중간재·가격 변화를 고려
기업이익·가계소득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분배한 소득	수출 총액만으로 이익률·임금 상승률을 알 수 없음
코스피	상장주식의 시장가격으로 구성한 지수	향후 이익의 지속성·요구수익률·수급을 반영

달성일과 급락일을 같은 사건으로 묶지 않는다

11월 19일 코스피는 5,137.89로 상승 마감했다. 한국은행은 수출 호조 등을 투자심리 개선 요인으로 설명했다. 다음 거래일인 20일에는 4,869.96으로 하락했다. 긍정적인 수출 정보가 존재한 상태에서도 시장의 다른 평가 요소는 변할 수 있다. [1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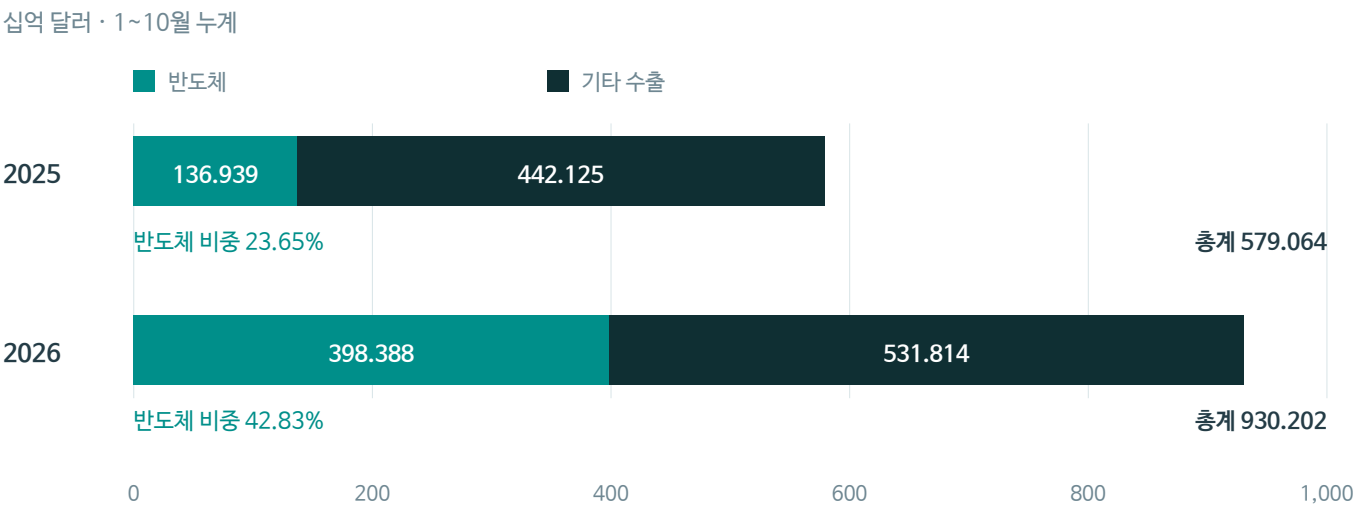
분석의 기준

수출 누계·분기 국민계정·월별 고용·일별 주가는 관측 기간이 다르다. 이들을 같은 날짜의 성장률처럼 비교하지 않고, 수출 성과가 실물과 금융시장에 전달되는 서로 다른 경로로 읽는다.

03 / EXPORT CONCENTRATION

수출 증가액의 4분의 3이 반도체에서 나왔다

관세청 성질별 분류·수리일 기준 | 각 연도 1~10월 | 금액: 십억 달러



총수출과 반도체는 같은 확정 통계표를 사용했다. 비반도체 = 총수출 − 반도체. 도표 금액은 소수점 셋째 자리, 계산은 원자료 백만 달러 기준. [2]

TradeLens 계산	결과	의미
반도체 비중	23.65% → 42.83%	동일 기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반도체 증가액 / 전체 증가액	261.449 / 351.138 = 74.46%	수출금액 증가액의 기여도
비반도체 수출 증가율	+20.29%	반도체 외 수출도 성장

반도체는 전체 수출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 따라서 해당 산업의 가격·제품 구성·설비투자 변화가 거시 총액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동시에 비반도체 합계의 성장을 인정해야 산업 전반의 실제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집중도를 읽는 방법

74.46%는 수출 증가액에 대한 기여도다. GDP 성장이나 코스피 하락에 대한 반도체의 기여도가 아니다. 또한 비반도체 합계의 증가는 자동차·기계·석유제품 등 모든 품목의 동일한 개선을 뜻하지 않는다.

04 / PRICE, VOLUME & INCOME

가격과 물량이 함께 늘어났다

확인된 사실 | 한국은행 2026년 10월 무역지수·전년 동월 대비·잠정

같은 무역지수 체계	증감률	분석에서의 역할
수출물량지수	+43.9%	가격을 조정한 물량의 확대
시차 적용 달러 수출가격	+44.3%	통관 시점에 맞춘 가격 효과
달러 수출금액지수	+107.6%	물량과 가격 효과를 함께 반영
순상품교역조건지수	+21.3%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더 상승

무역지수는 선박·무기류·항공기·예술품 등을 제외한다. 관세청 전체 통관 수출의 증가율 +93.9%와 대상 범위가 다르다. [3] [2]

수출금액 증가를 가격 효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같은 지수 체계에서 1.439 × 1.443 − 1 = 107.65%로, 공표 금액지수 증가율과 반올림 범위에서 일치한다. 물량과 가격의 동반 상승이다. 반면 상품의 무게를 합한 톤수는 제품 구성에 민감하므로 실질 수출물량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3]

국민경제의 구매력과 가계의 당기 소득은 구분한다

3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0%,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3.4% 증가했다. 교역조건 개선은 생산량 증가보다 큰 구매력 개선을 만들 수 있다. 다만 GDI 증가율이 곧 가계 임금이나 소비의 증가율인 것은 아니다. 기업·가계·정부 사이의 소득 배분과 지급 시점을 함께 봐야 한다. [4]

TradeLens 판단

수출 호조에는 실질 물량의 확대도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개선된 소득이 국내 투자·임금·조달·소비로 얼마나 이어지는가다. 가격 상승분 전부를 지속 가능한 이익 증가로 가정해서도 안 된다.

05 / GDP COMPOSITION

내수는 성장에 기여했고 소비는 약했다

2026년 3분기 실질 GDP 속보 | 계절조정 전기 대비 | 성장기여도: %p

성장기여도	기여	구성상 의미
국내총생산 증가율	+1.0%	분기 전체의 실질 성장
내수	+0.9%p	소비·투자·재고를 포함
순수출	+0.1%p	수출 증가 효과에서 수입 증가 효과를 차감

지출 항목	전기 대비	해석
민간소비	-0.2%	가계소비 확산이 고르게 나타나지 않음
정부소비	+1.9%	공공 수요의 증가
설비투자	+4.1%	투자 경로의 국내 수요 확대
건설투자	+0.7%	분기 기준 개선
수출 / 수입	+2.3% / +2.4%	총수출 증가와 순수출 기여는 다름

정부를 포함한 내수의 성장과 민간소비의 움직임을 분리한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3.4%와 위 전기 대비 수치를 혼용하지 않는다. [4]

소비 약화에는 일시적 요인도 작용했다

한국은행은 주식 거래 감소에 따른 금융서비스 소비 감소와 완성차 파업에 따른 인도 지연을 설명했다. 따라서 한 분기의 민간소비 감소를 수출 호황의 파급 실패 전체로 확대할 수 없다. [5]

TradeLens 판단

3분기 성장을 순수출만의 성과로 읽으면 내수 투자와 정부지출의 역할을 놓친다. 확인할 취약점은 내수 전체의 소멸보다 민간소비의 지속성과 민간 일자리로의 확산이다.

06 / JOBS & DOMESTIC DEMAND

월별 반등과 업종별 고용 격차가 공존한다

9월 산업활동과 10월 고용은 서로 다른 관측 기간이다.

9월에는 전산업 생산 +3.0%, 소매판매 +3.6%, 설비투자 +5.3%, 건설기성 +5.8%로 전월 대비 반등했다. 3분기 민간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해당 분기에 속한 9월의 생산·판매·투자 지표는 전월보다 반등했다. 소매판매는 재화 판매 지표로 국민계정 민간소비와 범위가 다르다. [6]

10월 취업자 증감	전년 동월 대비	해석
전체	+13.9만 명	고용은 증가했지만 업종별로 차이
제조업	-0.7만 명	수출 증가와 취업자 감소가 동시에 관측
건설업	-4.2만 명	건설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감소
숙박·음식점업	-13.7만 명	소비 관련 업종의 고용 부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24.9만 명	다른 업종의 감소를 상쇄하는 증가

전체와 선택 업종을 함께 제시했다. 표의 업종만 합산해 전체 취업자 증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취업자 수는 임금·근로시간·고용의 질을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7]

고용 파급의 강도와 시점은 산업구조에 따라 다르다

반도체 생산 확대가 설비·기술·생산성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매출과 인력의 증가율은 달라질 수 있다. 투자 단계의 건설·장비 조달과 가동 이후의 상시 고용도 구분해야 한다. 고용 통계만으로 기업의 성과급이나 협력업체 소득까지 추정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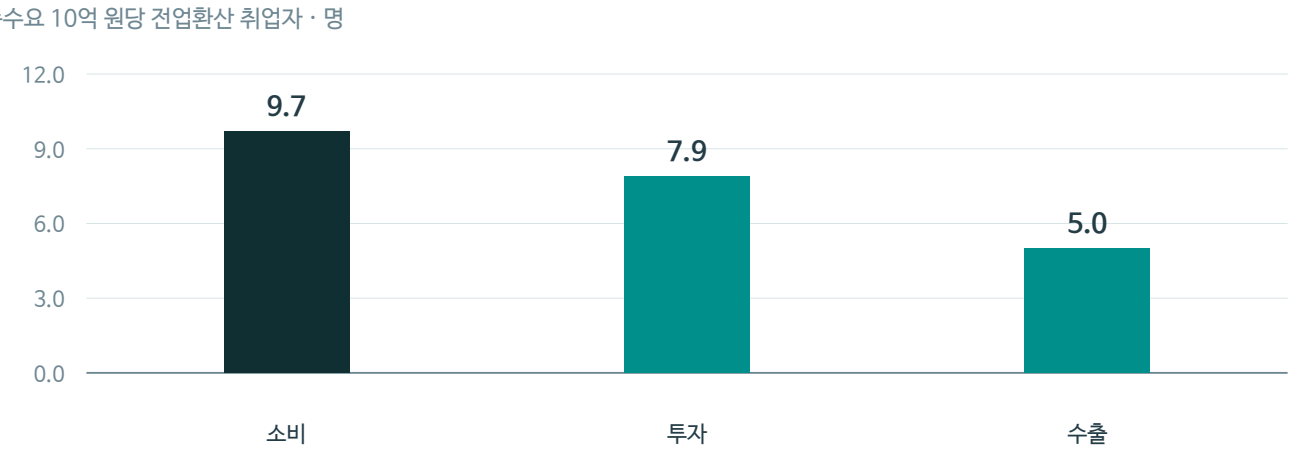
실물 확산을 확인할 조건

월별 반등이 여러 달 이어지는지, 민간 고용의 개선 폭이 넓어지는지, 실질 임금과 근로시간이 함께 개선되는지가 중요하다. 수출 증가율과 취업자 증가율을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해석은 피한다.

07 / EMPLOYMENT STRUCTURE

같은 최종수요에도 고용 파급은 다르다

구조 참고자료 | 2024년 산업연관표·2026년 9월 공표 | 2026년 고용 예측이 아님



한국은행 2024년 산업연관표의 최종수요별 취업유발계수. 해당 산업과 공급망의 직·간접 효과를 포함하며 직접 채용 인원과 다르다. [12]

수출의 국내 파급은 존재하며 고용 강도는 다르다

2024년 구조에서 같은 금액의 최종수요에 대응하는 취업유발계수는 소비 9.7명, 수출 5.0명이었다. 산업 구성과 투입 구조에 따라 매출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계수를 반도체 산업만의 효과로 읽어서는 안 된다. [12]

수출로 유발된 취업자의 비중은 2023년 20.7%에서 2024년 22.2%로 높아졌다. 고용유발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과 수출의 고용 기여가 커졌다는 사실은 함께 성립한다. [12]

계산의 경계

이 자료는 2024년 가격·기술·산업·고용 구조에 기반한 평균 계수다. 이를 2026년 달러 수출액에 곱해 신규 일자리나 향후 채용 규모를 산출하지 않는다. 최신 고용 변화의 원인은 별도의 산업·기업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TradeLens는 이 구조를 수출 중심 성장과 가계의 고용 체감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배경으로 해석한다. 수출 성과를 소비·서비스업의 일자리로 잇는 소득 분배와 국내 지출 경로가 중요한 이유다.

08 / FIRM DISTRIBUTION

중소기업도 수출이 늘었지만 격차는 커졌다

국가데이터처·관세청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 2026년 3분기·잠정

기업 규모	수출액 ·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전체	3,186	+72.3%
대기업	2,486	+103.5%
중견기업	369	+12.8%
중소기업	327	+10.7%

세 기업군의 합계는 전체와 다르다. 비영리기업·미연계기업·개인 등이 기업 규모별 집계에서 제외된다. 기업특성은 2년 전 기업자료에 기반하며 통계는 잠정치다. [8]

수출 상위 10개 기업의 집중도는 60.9%다

같은 통계에서 상위 10개 기업 수출은 1,940억 달러로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의 공표 비중은 40.5%다. 중소기업 수출도 증가했지만 성장의 총량은 대기업에 훨씬 더 집중됐다. [8]

직접 수출과 국내 공급망 매출을 연결해야 한다

직접 수출이 적은 기업도 수출 대기업에 국내에서 부품·장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반대로 직접 수출이 늘어도 원재료·물류비·금융비용이 더 빠르게 오르면 이익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기업 규모별 수출 통계만으로 협력업체의 이익이나 고용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다.

TradeLens 판단

중소기업까지 일제히 위축됐다는 해석은 자료와 맞지 않는다. 성장의 확산 정도는 직접 수출 증가와 함께 국내 조달, 협력업체의 마진·대금 회수, 고용의 변화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09 / MARKET REPRICING

주가는 앞으로의 이익과 위험을 다시 평가한다

시장 관측 | 2026년 11월 20일 한국 정규시장 종가

관측 지표	결과	자료의 성격
코스피	4,869.96 / -5.21%	전일 종가 대비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7.01% / -5.92%	개별 종목 하루 등락률
외국인 유가증권시장 순매도	1조 1,420억 원	당일 거래 흐름·연합뉴스 마감 집계
코스닥	645.68 / -5.71%	코스피와 구분한 별도 시장

당일 시장 보도는 AI 투자·자금조달의 지속성과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우려 등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는 시장 해석이며 요인별 낙폭의 인과적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9]

현재 수출의 호조와 미래 수익성의 불확실성은 공존한다

수출액은 신고 수리 기준의 명목 수출금액을 기록한다. 주식 가격은 향후 수요, 판매가격, 비용, 재투자와 주주에게 돌아올 현금의 가치를 반영한다. 현재 실적이 좋아도 그 지속 기간이 짧아지거나 요구수익률이 높아지면 가격은 낮아질 수 있다.

수출 집중은 노출을 설명하지만 당일 낙폭을 계산하지는 못한다

반도체 비중의 상승은 한국의 수출 성과가 해당 산업의 변화에 더 민감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출 비중을 그대로 코스피 비중이나 하락 기여도로 옮길 수는 없다. 주식시장은 업종 구성과 기업별 자본구조·주주환원 정책도 반영한다.

TradeLens 판단

급락은 수출 기록을 부정하지 않는다. 현재 이익이 미래에도 유지될지에 대한 질문을 강화한다. 실물 전망을 낮추려면 실제 주문·출하·가격·투자 계획의 약화가 추가로 관측되는지 살펴야 한다.

10 / TRADE & CAPITAL FLOWS

수출대금과 외국인 주식자금은 다른 흐름이다

금융감독원 | 2026년 10월·결제 기준 | 금액: 조 원

외국인 상장증권 거래	금액	범위
상장주식 순매수	-25.978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합계
상장채권 순투자	+7.375	매수 - 매도 - 만기상환
상장증권 순투자 합계	-18.603	위 주식·채권 흐름의 합계

금감원은 결제 기준, 거래소 일별 매매는 체결 기준이다. 10월 집계를 11월 20일 코스피 수급에 그대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주식은 장내, 채권은 장내·장외 거래 기준. [10]

주식 매도와 채권 투자가 동시에 나타났다

해외 투자자는 한국 수출이 성장하는 동안에도 주식의 기대수익·위험을 조정할 수 있다. 10월에는 주식 순매도와 채권 순투자가 함께 나타났다. 이 관측만으로 한국의 모든 자산에서 같은 방향의 자금 회수가 진행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10]

보유액의 감소를 전부 현금 유출로 읽지 않는다

10월 말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1,899.0조 원으로 전월보다 396.9조 원 감소했다. 이는 같은 달 순매도 25.978조 원과 다른 지표다. 보유 주식의 가격 변화가 평가액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10]

> **수출이 환율·주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는 이유**
>
> 수출 신고, 대금 수취, 외화 보유·환전은 시점과 목적이 다르다. 수입 결제, 해외 투자, 헤지와 외국인 증권 거래도 함께 작용한다. 통관 수출액만으로 당일 외환 공급이나 주식 매수 여력을 산출하지 않는다.

11 / TRANSMISSION MECHANISM

수출 성과가 내수로 전달되는 네 가지 조건

TradeLens 분석 | 아래 경로는 경제적 구조이며 실제 파급계수를 추정한 모형은 아니다.

수출·현금창출
가격·물량·비용
실제 대금 회수

›

국내 투자·분배
조달·설비·임금
성과급·배당·세금

›

가계·지역 수요
소비·서비스 고용
재투자와 소득 순환

연결 조건	확산이 커지는 경우	확인할 증거
국내 부가가치	국내 생산·조달의 비중과 효율이 개선	수입 중간재, 국내 협력업체 매출·이익
투자의 집행	발표한 설비·연구개발 계획이 실제 지출로 연결	장비 인도·공장 건설·투자 집행
소득의 분배	현금창출이 임금·성과급·배당·세입으로 연결	지급액과 지급 시기, 세수·정부지출
지출의 지속	추가 소득이 반복적인 소비와 고용으로 연결	실질 소비·임금·근로시간·민간 고용

한국은행은 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설비투자·연구개발·공장 건설에 나타나는 한편, 성과급·배당·법인세를 통한 소비·정부지출 파급에는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진행된 투자 파급과 앞으로 확인할 소득 파급을 구분해야 한다. [5]

기업과 정책이 함께 볼 기준

기업은 판매 증가뿐 아니라 마진·현금 회수·국내 발주를 관리해야 한다. 정책은 수출 실적과 함께 공급망의 생산성, 근로소득, 지역 고용의 확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접 수출액만으로 개별 협력업체나 가계의 수혜를 추정하지 않는다.

12 / CONDITIONAL OUTLOOK

세 경로를 가르는 것은 성장의 확산이다

TradeLens 시나리오 | 확률·지수 목표·매매시점을 부여하지 않는 조건부 전망

경로	관측 조건	경제적 결과
기본 불균등한 확장	반도체·비반도체 수출 증가 지속 투자 개선, 소비·민간 고용은 혼재	총량 성장과 산업·기업·가계 간 격차가 공존
개선 소득의 확산	국내 조달·협력업체 이익 개선 실질 소비와 민간 고용이 함께 확대	특정 수출 업종에 대한 성장 의존 완화
악화 수출·투자 동반 약화	반도체 가격·물량이 함께 둔화 설비 집행·주문·고용도 약화	집중된 성장 동력이 약해지며 실물 파급 확대

기본 경로를 지지하는 근거

비반도체 수출과 중소기업 수출도 증가했고, 3분기 내수는 성장에 기여했다. 동시에 민간소비와 일부 업종 고용은 약했다. 이 조합은 전면적 침체나 전면적 호황보다 확산 속도가 다른 성장에 가깝다. [2] [4] [7] [8]

기본 판단을 바꿀 조건

소비의 일시적 제약이 해소된 뒤에도 민간소비·임금·고용의 개선이 이어지지 않으면 분배 경로의 제약을 더 크게 봐야 한다. 여기에 수출물량과 가격이 동반 약화하고 기업의 투자 집행까지 줄면, 단순한 파급 시차라는 설명의 설득력은 낮아진다.

증시와 실물의 확인 시점은 다르다

주가는 실물 변화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다. 반등 자체를 소득 확산의 증거로 삼거나, 추가 하락만으로 소비·고용의 악화를 확정하지 않는다. 시나리오는 실제 사업·국민계정·고용의 후속 관측으로 갱신한다.

13 / MONITORING & CONCLUSION

총액보다 함께 개선되는 지표를 본다

TradeLens 최종 판단 | 수출의 크기에서 성장의 폭·분배·지속성으로

추적 항목	개선 신호	판단을 낮출 신호
수출의 폭	반도체 외 품목·기업군의 증가 확산	비반도체 성장 둔화와 집중도 추가 상승
가격과 물량	물량 증가와 수익성의 동반 유지	가격·물량 동반 둔화
국내 투자·조달	집행 지속, 협력업체 이익·수금 개선	발주 연기·마진 압박·지급 지연
가계소득·소비	실질 임금·소비의 지속적 개선	일시 요인 해소 뒤에도 소비 부진 지속
민간 고용	제조·건설·대면서비스로 개선 확산	일부 서비스 증가에 전체 고용 의존
자금·기대 이익	실적 지속성·투자 재원에 대한 가시성 개선	주문 약화와 자금조달 부담의 동반 확대

1조 달러 수출은 한국 기업의 판매 역량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출 총액, 국내 부가가치, 가계소득과 주식 가치는 서로 다른 지표다. 이 구분을 유지해야 수출 호황 속 소비·고용 격차와 시장 급락을 함께 설명할 수 있다.

결론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는 수출 성과의 존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그 성과가 얼마나 넓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지 평가하는 단계로 옮겨갔다. 현재의 증거는 수출·투자 확대와 불균등한 소득 확산을 지지한다. 코스피의 급락은 미래 이익과 위험에 대한 별도의 평가이며, 실물 전망은 가격·물량·투자·소비·고용을 연결해 판단해야 한다.

관세청·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금융감독원의 관측을 종합한 TradeLens 분석. 개별 업종·기업의 이익이나 성장률에 대한 미공표 추정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14 / DATA & CALCULATIONS

기간·단위·분모를 맞춘 분석

작성 기준: 2026년 11월 22일 한국시간 | 공표된 관측치와 TradeLens 계산을 구분

자료	사용 기간·상태	분석에서 지킨 기준
수출 기록 [1]	1월 1일~11월 19일·잠정	상품 통관액, 명목 달러; 연간 최종치와 구별
수출 구성 [2]	2025·2026년 각 1~10월 11월 16일 확정 발표	관세청 성질별·수리일 기준 동표 사용
무역지수 [3]	2026년 10월·잠정	제외 품목·가격 시차 조정; 총수출과 범위 차이
국민계정 [4] [5]	2026년 3분기·속보	실질·계절조정 전기 대비, %와 %p 구별
산업활동·고용 [6] [7]	9월 산업활동 / 10월 고용	전월 대비와 전년 동월 대비 구별
기업 규모별 수출 [8]	2026년 3분기·잠정	동일 통계 내 비교, 분류 제외·시차 명시
시장·증권 흐름 [9] [10] [11]	11월 19~20일 / 10월	거래일·시장·체결/결제 기준 구별
산업연관 구조 [12]	2024년 구조·2026년 공표	평균 직·간접 전업환산 효과; 신규 고용 예측 아님

핵심 계산식 · 원자료 단위는 백만 달러

반도체 비중 = 398,388 / 930,202 × 100 = 42.83%. 증가액 기여도 = (398,388 − 136,939) / (930,202 − 579,064) × 100 = 74.46%. 비반도체 증가율 = [(930,202 − 398,388) / (579,064 − 136,939) − 1] × 100 = 20.29%. [2]

수출금액 증가액 기여도는 GDP·고용·주가 기여도가 아니다. 소수점과 공표단위의 반올림으로 합계·비중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기업 규모별 표의 총계와 세 기업군 합계 차이는 분류 제외도 반영한다.

주요 공식 통계의 사실, 기관의 설명, TradeLens의 해석·시나리오를 구분했다. 시장 급락의 배경에 관한 보도는 보조 자료로 사용했으며, 요인별 인과 효과나 미공표 마진·고용 유발계수를 추정하지 않았다.

15 / SOURCE REGISTER

출처 목록 · 수출과 국내 경기

본문 출처번호와 자료명·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자료로 연결됩니다.

01. 관세청 | 숫자로 풀어 보는 수출 1조 달러 원문 열기

2026.11.20 · 공식 통계·잠정 | 1월 1일~11월 19일 누계, 상품 통관 수출

02. 관세청 | 2026년 10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원문 열기

2026.11.16 · 공식 통계 | 1~10월·품목별 동표 p11, 증가액·비중 계산

03. 한국은행 | 2026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원문 열기

2026.11.13 · 공식 통계·잠정 | 물량·달러가격·금액지수, 제외 품목·시차

04. 한국은행 | 2026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원문 열기

2026.10.27 · 공식 국민계정 | GDP·GDI, 실질 전기비·내수/순수출 기여도

05. 한국은행 |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기자설명회 원문 열기

2026.10.27 · 기관 설명·질의응답 | 소비의 일시 요인, 소득 파급의 시차

06. 국가데이터처 | 2026년 9월 및 3분기 산업활동동향 원문 열기

2026.10.30 · 공식 브리핑 | 9월 생산·소매판매·설비투자·건설기성

원문 제목과 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자료로 연결됩니다.

16 / SOURCE REGISTER

출처 목록 · 고용·기업·금융시장

본문 출처번호와 자료명·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자료로 연결됩니다.

07. 국가데이터처 | 2026년 10월 고용동향 원문 열기

2026.11.11 · 공식 가구조사 | 전체·업종별 취업자 전년 동월 대비 증감

08. 국가데이터처·관세청 |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원문 열기

2026.11.10 · 공식 통계·잠정 | 규모별 수출 p4, 상위 기업 집중도 p16

09. 연합뉴스 | 코스피 5%대 급락, 4,800대로 후퇴(종합) 원문 열기

2026.11.20 · 시장 마감 보도 | 지수·종목·수급 관측과 시장 해석 구분

10. 금융감독원 | 2026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원문 열기

2026.11.20 · 공식 자료·KDI 원문 | 결제 기준 주식·채권 흐름, 보유 평가액

11. 한국은행 | 금융시장 주요지표(금리·주가·환율, 11.20) 원문 열기

2026.11.20 · 공식 일일자료 | 관측일 11월 19일, 코스피와 수출 호조 설명

12. 한국은행 | 2024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 원문 열기

2026.09.21 · 공식 구조자료 | 2024년 최종수요별 전업환산 취업유발계수

공식 통계와 시장 보도의 범위를 구분해 사용했습니다.

17 / METHODOLOGY & NOTICE

자료·계산 기준 및 이용 안내

분석 기준일 2026.11.22 · 시장·산업·거시경제의 구조와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계산 기준

수출 기록은 2026년 11월 19일 누계 잠정치, 구성 비교는 1~10월 관세청 확정 발표를 사용했다. 무역지수·국민계정·산업활동·고용·기업특성별 무역통계는 각각의 공표 기간과 정의를 따른다. 시장 관측은 11월 19~20일, 외국인 증권 흐름은 10월 결제 기준이다.

성장기여도와 증가액 기여도, 명목 수출액과 실질 물량·소득, 기업 매출과 이익·가계소득을 구분한다. 수출 구성 계산은 같은 기간·분류의 원자료를 사용하며 소수점 반올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나리오는 관측 조건에 따른 TradeLens 분석이며 확률·지수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다.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시장·산업 및 기업의 경제적 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가격·목표가격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가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